

LG상사, 남미 석유광구 인수 나서

아르헨티나 Geopark와 공동으로 ... 남미 자원개발 사업 발판 마련

LG상사가 남미 소재 석유광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LG상사는 아르헨티나 석유개발기업인 Geopark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남미지역 석유광구의 공동인수를 추진키로 했다고 3월12일 발표했다.

Geopark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남미의 6개 탐사·생산광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LG상사는 공동인수 추진을 계기로 남미지역 자원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LG상사는 2009년부터 지분을 확보한 인도네시아의 유연탄광과 오만 웨스트부카 유전에서 생산을 시작했다.

LG상사 관계자는 “Geopark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기술인력과 안정된 광구 운영능력을 갖춘 곳”이라며 “공동인수를 통해 남미지역 자원개발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11>